



창조적인 작품 활동을 유도하여 심미적이고 창의적인 무용인 발굴

전국 수리무용콩쿠르는 무용을 통한 정서 발달과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무용 이념의 실현과 무용문화 저변확대를 꾀하기 위해 군포시가 주최하고 (사)한국예총 무용협회 군포시지부(지부장 양대승)가 주관하는 대회이다. 2003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0회째가 되는 수리무용콩쿠르는 공정한 심사와 원활한 대회 진행으로 신뢰를 쌓아 전국의 무용인들에게 꿈의 무대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매 대회마다 참가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 ‘문화의 도시’ 군포를 알리기 위한 취지를 잘 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리무용콩쿠르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일본 등에서도 참가하고 있고 국내 유수의 대학에서 현대무용이나 고전무용, 발레를 전공한 전문무용인과 일반 대중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어 무용인구의 확대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 종합대상에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제정해 무용인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수준 높은 작품들을 출품하고 있어 콩쿠르의 격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수리무용콩쿠르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문화의 도시' 군포를 전국에 알리는 홍보효과도 뒤따르고 있다. 콩쿠르 참가자만 군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대회장을 찾는 지도교사, 가족 등을 포함하면 대회가 열리는 날 많은 사람들이 '책과 문화의 도시' 군포를 방문하는 것이다.

수리무용콩쿠르를 주최한 한국무용연구원 양대승 지부장은 "무용계의 인재들이 수리무용콩쿠르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것은 꼭 고무적인 일이다. 군포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인원이 늘고 있으며 각 지역의 무용협회에서도 호응이 크다." 고 하였다.

수리무용콩쿠르 개요

수리무용콩쿠르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부문으로 나뉘 치러진다. 제7회 대회부터, 대학, 일반부 부문을 명무부와 일반부로 나누어서 전공자와 취미 활동자를 구분하여 경연하였다. 또한 대학, 명무부의 경우 순서추첨을 통하여 성명대신 추첨번호로 심사에 들어가 참가자의 실력 평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실히 하였다. 전국 수리무용콩쿠르 참가자격은 전국 유치부,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고교졸업생포함)이다. 경연순서는 한국무용(전통, 창작) → 현대무용 → 발레(클래식, 창작)로 이어지며 공연시간은 유, 초, 중·고등부분은 개인 2~3분, 단체 4분이다. 대학과 명무부는 개인 3분과 단체 5~8분으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참가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심사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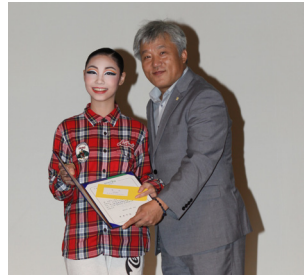
개최 측에서는 심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신속하고 깨끗한 심사진행과 공정한 결과로 참가자들의 호감을 사고 있다. 심사위원은 국내 대학의 현대무용 전공교수와 한국무용, 발레 부문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분들을 모셔서 수리무용콩쿠르의 높은 수준을 심분 반영한 심사를 하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 참가자에게서도 무용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뛰어난 실력을 볼 수 있었다”며 “비전공자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무용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평했다. 또 “중·고등부 참가자들 중 훌륭한 무용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인재가 많았다”며 모두가 무용계의 미래를 빛낼 주역이 되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도 했다.

수리무용콩쿠르는 군포시에서 주최하여 대회에 대한 신뢰성이 보장되고 시 예산이 있어 참가자들에게 일부 장학금이 수여되는 점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된다. 시상내역은 종합대상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수여되며 대상에 경기도지사상, 특상, 금, 은상에 군포시장상과 동상에 (사)한국무용연구원이사장상, 장려상에 (사)한국무용협회 군포지부장상이 수여된다. 여타의 콩쿠르보다 높은 상금도 무용인들의 의욕을 북돋워주고 고양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대회가 열리는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은 전국수리무용콩쿠르 개최 장소로 손색이 없는 공간이다. 공연장의 편의시설 및 무대, 객석 등이 전국규모의 무용 대회를 하기에 최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교통 접근성의 용이함으로 전국 어디서라도 편리하고 쉽게 올 수 있어 군포를 찾는 무용인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다.







수리무용콩쿠르의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

실력 있는 무용인을 배출하고 전국에 무용의 도시 군포를 홍보하기 위해 2003년 개최된 전국수리무용콩쿠르는 장학금 지급과 공정한 심사로 국내 유수의 대회로 자리매김했다. 1회 대회부터 올해 10회 대회까지 매 대회마다 평균 150여 팀 6~700여명의 무용인들이 꾸준히 참가하고 있으며 수리무용콩쿠르를 찾는 사람들에게 군포라는 도시는 아름답고 친절하고 도시 이미지와, '문화와 책의 도시'라는 시책이 잘 전달되어 전국적인 홍보효과가 매우 크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유학 중인 무용인들도 참가하는 등 관심이 높아져 전국수리무용콩쿠르에 거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무용연구원 양대승 이사장은 앞으로 더욱 내실을 다져서 전국을 넘어 국제규모의 콩쿠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무엇보다 무용계의 꿈나무들이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마음껏 아름다운 자태를 뽐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전국수리무용콩쿠르를 개최하는 진정한 의의가 될 것이다. 군포시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이 대회는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며 더불어 문화예술의 도시 군포의 위상도 높아질 전망이다.

